

양계업 자조금 기금조성

6월 한달 한시적 거출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한다는 취지와 방역대책을 위해 사용될 양계업 자조금 기금 거출이 육계업계와 종계업계의 참여로 1개월간 자율적인 참여로 시행이 되었다. 지난 6월 4일 양계인 대회 개최시 당초 부화장에서 병아리 판매시 수당 10원을 징수하여 본회 자조금 계좌로 송금키로 하였던 계획을 변경하여 육계와 종계업계가 별도로 각각 5원씩 적용하여 기금을 마련키로 합의하여 시행하였는데 약정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조금 의무규정 입법화 추진

전축종 공동 대처키로

축산업계가 그간 자율규정에 의해 시행해 온 자조금사업이 농가의 이해부족으로 참여도가 저조해 성과를 높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 아래 자율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하도록 법개정을 위해 본회를 비롯하여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그간 자조금사업에 참여해온 생산자들은 자율적으로 시행해 본 결과 무임승차자가 많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축산인에게 오히려 참여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수입량의 증가와 안정성 확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전 축산인들이 자조금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목표 아래 각 탄제별로 동의서를 받기로 하였다.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팀

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 계획

정보화 구축에 초점 맞춰 본회 의견제출

정부가 2001년 축산물 완전 수입개방에 대비 코자 21세기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 계획에 대한 시안을 만들어 각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 수출기반 조성, 정보화 구축을 골자로 하여 중장기 투융자 계획(시안)에 대한 본회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번에 수립되는 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 계획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하여 세워지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금티푸스, 뉴캣슬병 발병률 높아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침이 없다. 질병 발생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본적인 기본적인 사양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닭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인체에 반드시 해를 미친다는 것은 아니나 기초 단계의 사양관리가 소홀한 농장에서 사육된 닭은 유해물질 잔류나 세균감염율이 높아 어쨌든 안전성 확보에 결림들이 되고 있다.

국내 축산물 안전성 홍보요청

본회 등 축산단체 공동으로

벨기에산 축산물에서 다이옥신 검출 파문이 조기에 가라앉지 않고 국내 매스컴을 통하여 더욱 확산되면서 국내 축산물 소비까지 감소하

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사료원료로부터 기인된 이번 벨기에산 축산물의 다이옥신 검출과 관련 국내 소비자들은 사료원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국내산 축산물에서도 다이옥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데 동감하여 배합사료의 안전성과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사료협회 차원에서 대 소비자 홍보를 전개해 줄 것을 본회와 한국 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가 공동으로 요청하였다.

이번 사건은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번 사건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난가 하락요인 상존

소비 줄고 생산량은 증가

난가 하락 폭이 예상보다 커져 실제 수취가격이 사료비에 근접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생산조절에 힘입어 난가가 강세를 유지해 왔으나, 그후 서서히 사육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난가는 약세를 보여 왔다.

여기에 난가 상승 기대심리로 노계로 도태되어야 할 다수 계군들이 강제환우에 가담하여 곧 생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봄에 중추가 품귀현상을 보일 만큼 입추열기가 높아 계사 가동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용계 병아리 생산량도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종계노계 출하 영향으로 산란노계 가격이 800원선에도 작업이 원활치 않아 우려가 된다. 양계